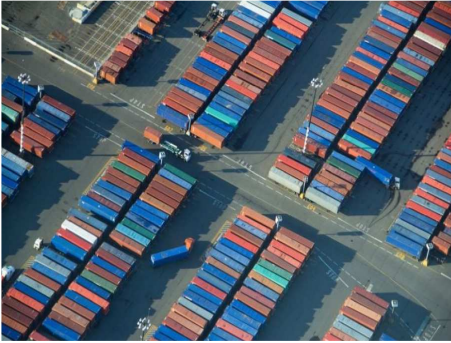




[교역동향] 英, 금년 상반기 유제품 수출입 급감

- 브렉시트 단행 및 코로나19 장기화가 주요인...식음료 수출도 감소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단행된 브렉시트 및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금년 상반기 영국의 유제품 수출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HMR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고, 수입 또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품목의 수출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우유 및 크림 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2% 증가했고 수입은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브렉시트 단행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 규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입 수요가 줄고 계속되는 봉쇄령으로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식음료연맹(FD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EU 식음료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하며 식음료 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rminguk.com, 8월 19일자 >

[시장동향] 대체우유 시장 성장 가속화 - 유로모니터 발표

- 식물성 대체우유는 물론 실험실 우유 개발 확대



건강은 물론 식물성 대체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우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대두 음료는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식물성 대체우유 시장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반면 아몬드, 귀리, 코코넛, 완두콩 등 기타 식물성 대체우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 성장하며 매출이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非)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물성 대체우유는 물론 실험실에서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소위 '실험실 우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유로모니터는 향후 수년간 단백질 함량이 높은 병아리콩, 누에콩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식물성 대체우유 개발은 물론 더 나은 풍미 개발을 위해 기존 원료에 새로운 원료를 혼합한 제품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분석하고, 실험실 우유는 5년 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용화되어 10년 후에는 가장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8월 1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